한국어능력시험(TOPIK) 중급과 고급 읽기 영역의 문항 유형과 구성

董洋* · 이혁화**

〈차 례〉

1. 도입
2. 선행 연구 검토
3. 중급의 문항 유형
4. 고급의 문항 유형
5. 숙달도에 따른 문항 유형의 비율과 종류
6. 마무리

【국문초록】

본고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중급과 고급 읽기 영역을 대상으로 하여 문항 유형을 확립하고 숙달도에 따른 구성의 차이를 분석하여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한국어능력시험 중급과 고급의 읽기 영역 문항 유형은 공개된 문항틀에 제시된 문항 유형을 바탕으로 여러 논의들의 제안을 비교하여 논의하되, 인지 과정을 기준으로 하여 '접근과 확인', '통합과 해석', '성찰과 평가' 범주를 분류의 기준으로 하였다. 그 결과

* 제1저자, 영남대학교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학과 박사 수료.
** 교신저자,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한국어능력시험 중급의 읽기 영역에서는 9가지, 고급의 읽기 영역에서는 11가지 문항 유형이 사용되고 있으며, 문항 유형 중에서 ‘세부 내용 파악하기’만이 ‘접근과 확인’ 범주에 속하고 나머지 유형은 모두 ‘통합과 해석’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달도에 따라 문항 유형의 종류와 비율을 고찰한 결과, 초급에서 고급으로 갈수록 ‘접근과 확인’ 범주의 문항 유형은 줄어들고 ‘통합과 해석’ 범주의 문항 유형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경향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평가 도구로서의 성격을 감안할 때 한국어능력시험 읽기 영역에는 여전히 개선할 점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는 ‘성찰과 평가’ 범주에 속하는 문항 유형이 존재하지 않으며, 숙달도에 따른 문항 유형의 비율에 경험적이고 실제적인 근거가 필요하고, 문항 유형을 고정하여 배치함으로써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주제어: 한국어능력시험(TOPIK), 중급과 고급 읽기 영역, 문항 유형, 접근과 확인, 통합과 해석, 성찰과 평가, 숙달도

1. 도입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외국어로서 한국어능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평가 도구이다. 그 중에서 읽기 영역은 대부분의 언어 평가 도구에서 등장하는 고전적인 영역으로서 문어의 형식으로 산출되는 결과물에 대한 이해 능력의 대표적인 측정 영역이다. 문어 이해 능력을 어떻게 규정하고 접근하는지는 연구자의 관점과 입장에 따라 상이할 수밖에 없지만, 현행 한국어능력시험의 읽기 영역

에서 출제되고 있는 문항의 종류와 구성을 분석하면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한국어 읽기 능력이 무엇인지 추론해 낼 수 있다.

한국어능력시험 읽기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등급 기술과 평가 내용은 김정숙 외(2010)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각 급별 총괄 기술과 함께 '소재, 기능, 텍스트 유형' 등이 정리되어 있다. 또한 현행 한국어능력시험 읽기 영역에서 출제되고 있는 문항의 종류와 구성에 대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 공식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공개된 문항틀에서 밝히고 있는 '출제 의도', '문항 유형'[1]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제한된 자원과 통제된 형식으로 수험자들의 읽기 능력을 측정해야 하는 평가 도구의 성격을 감안할 때, 실제 수험자들이 시험 상황에서 접하게 되는 문항의 지시문(혹은 발문)을 통하여 수험자들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읽기 능력을 구성하고 있는 구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종류의 텍스트를 읽느냐 등등에 따라 총체적인 읽기 능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즉 읽기 구인은 달라질 수 있다.[2] 한국어능력시험의 읽기 영역 또한 구체

---

1) 문항 유형은 이해영(2005)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형식적인 측면은 '진위형, 선다형' 등과 같이 '고르거나 표시하거나 쓰거나' 하는 수험자의 직접적인 행위와 연관된 성격이 강하다고 한다면, 내용적인 측면은 '세부 내용 파악하기, 중심 내용 파악하기' 등과 같이 '접근하고 확인한다거나 통합하고 해석한다거나' 하는 수험자의 인지 과정에서 수행하는 내적인 문제 해결 과정과 연관된 성격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문항 유형'이라는 용어는 후자의 경우에 국한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2) 예를 들어 TOEFL 2000 읽기 틀에서는 읽기 이해의 구인을 '과정, 과제, 독자의 목적'이라는 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읽기 목적은 '정보 찾기를 위한 읽기, 기본 이해를 위한 읽기, 학습을 위한 읽기, 정보 통합을 위한 읽기'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다(Enright 외 2000).

적인 평가 도구로서 취하고 있는 읽기 구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 '소재, 기능, 텍스트 유형, 문항 유형, 상황' 등의 측면이 다각적으로 분석될 때, 평가 도구로서 한국어능력시험의 읽기 영역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본고는 현행 한국어능력시험의 읽기 영역을 대상으로 하여 문항 유형과 구성의 측면을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3] 초급의 문항 유형과 분류에 대해서는 동양·이혁화(2013)에서 논의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중급과 고급의 읽기 영역을 대상으로 문항 유형과 구성을 분석하기로 한다. 2장에서는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연구의 필요성과 분석 방법을 제시한다. 3장과 4장에서는 중급과 고급의 읽기 영역 문항을 대상으로 한 문항 유형의 명칭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접근과 확인', '통합과 해석', '성찰과 평가'라는 인지 과정의 범주를 기준으로 분류를 시도한다. 5장에서는 중급과 고급의 읽기 영역 문항 유형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능력시험 읽기 영역이 가지는 특징적인 면을 고찰한다. 6장은 마무리이다.

2. 선행 연구 검토

한국어능력시험 읽기 영역의 문항 유형에 대한 연구들은 적지 않다. 우선 문항 유형에 대한 연구로는 이해영(2005)와 강승혜 외(2006)을 들 수 있다. 이해영(2005)에서는 제8회 한국어능력시험 읽기 영역을 대상으로 하여 활용된 14개의 문항 유형을 정리하였으

3) 한국어능력시험의 체제개선을 위한 연구가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본 연구가 거의 마무리될 시점에서야 새롭게 개편되는 한국어능력시험의 문항들의 대강을 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진행 중인 체재개선 내용은 본 연구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며, 강승혜 외(2006)에서는 한국어 읽기 평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항 유형을 25개로 정리하여 숙달도에 따라 활용이 가능한 문항 유형을 정리하였다.

한국어 읽기 평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항 유형을 병렬적으로 제시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각 문항 유형을 범주화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강현화 외(2009)에서는 25개의 문항 유형을 '어휘 능력, 사실적 이해 능력, 구조적 이해 능력, 추론적 이해 능력, 논리적 이해 능력'의 5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여기에서 분류의 기준이 되는 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에서의 5가지 행동 영역이었다. 이상린(2012), 박선옥(2013)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읽기 영역을 대상으로 하여 문항 유형을 분류하였는데, '어휘·문법' 영역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분류 기준을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의 두 범주를 제시하였다.

한편 양길석 외(2012)에서는 제22회~제24회 한국어능력시험을 대상으로 하여 읽기 영역에서 '맥락 이해, 세부 내용, 중심 내용, 추리 및 추론'의 4가지 범주를 기준으로 하여 문항의 구인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한국어능력시험의 문항 유형을 분석함에 있어 여타의 논의들과 달리 문항 자체의 분석을 통해 이들 4가지 범주를 설정하고 그 타당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연구를 통해 우리는 문항 유형과 분류 기준에서 더 많은 논의 과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국어능력시험의 문항 유형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입장과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능력시험 초급의 읽기 영역에서 31번~33번까지의 문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양한 명칭이 제안되고 있다(동양·이혁화 2013)

문항번호	출제 의도	문항 유형	지시문(발문)
31-33	표지 이해 능력을 측정한다.	정보 파악하기	다음을 읽고 관계있는 것을 고르십시오.

강현화 외(2009)	조윤희(2010)	양길석 외(2012)	박선옥(2013)
어휘 능력(단어와 일치하는 문장/그림 찾기)	어휘 의미 파악하기	맥락 이해	사실적 이해 (표지 이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공개 문항틀에서는 문항 유형으로 '정보 파악하기'라는 명칭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런 명칭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 문항 유형의 명칭에 대해서도 근거를 따져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문항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어능력시험의 문항 유형에 대해서는 대체로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등과 같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행동 영역에 따른 사고 범주를 기준으로 하거나, '맥락 이해, 세부 내용, 중심 내용, 추리 및 추론' 등의 독자적인 범주를 기준으로 분류되었다. 그런데 2011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중영역으로 설정한 '내용 확인, 추론, 평가와 감상'이라는(김도남 외 2012) 범주에 있어서, '추론'의 영역에 '주제 파악' 등이 포함되는지 혼선이 빚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김혜정 2011). 곧 '주제 파악'이 '추론'의 범주로 이해되기도 하고 '내용 확인' 범주로 이해되기도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분류 기준이 되는 범주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양·이혁화(2013)에서는 문항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PISA 2012에서(OECD 2013) 읽기 문식성의 양상(aspect) 범주로 제시한 '접근과 확인, 통합과 해석, 성찰과 평가' 범주를[4] 활용할 것을 제

4) PISA의 '양상'은 독자가 텍스트에 접근하는 내적 사고 과정에 해당하는 범

안하고 문항 유형을 분류하였다. 3장과 4장에서는 이러한 범주를 활용하여 한국어능력시험 중급과 고급의 읽기 영역에서 출제된 문항을 대상으로 하여 문항 유형을 확립하고 사고나 인지 과정을 기준으로 하여 문항 유형을 분류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문항 유형은 한국어능력시험의 공개 문항틀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되, 개별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된 문항 유형을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다.

3. 중급의 문항 유형

공개 문항틀의 '출제 의도'와 '문항 유형', 출제된 문항의 지시문(혹은 발문), 각 연구자가 제안한 문항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어능력시험 중급의 읽기 영역에서 활용되는 문항 유형은, 다음의 9가지로 정리된다(문항 번호 순서).

> 화제 파악하기(31~34번), 세부 내용 파악하기(35~38번, 50번, 54번, 58번), 중심 내용 파악하기(39~42번, 51번, 57번, 59번), 문장의 순서 추론하기(43~45번), 생략된 정보 추론하기(46~48번, 52번, 56번), 제목 파악하기(49번), 인물의 태도/심정 파악하기(53번), 글의 목적 파악하기(55번), 앞/뒤에 올 내용 추론하기(60번)

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접근과 확인'은 독자가 특정 정보를 찾아내고 파악하기 위해 정보의 공간에 접근하고 탐색하는 과정으로, '통합과 해석'은 텍스트의 응집성을 이해하고 표면에 명시되지 않은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성찰과 평가'는 독자 자신의 경험과 지식, 가정을 참조하며 텍스트에 대해 특정한 가치 판단을 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김경희 외 2010: 41).

1) 화제 파악하기

문항번호	출제 의도	문항 유형	지시문(발문)
31-34	주제 파악 여부를 측정한다.	읽고 주제 찾기	다음은 무엇에 대한 글인지 고르십시오.

문항번호	강현화 외(2009), 박지연(2012)	정진옥(2012)	양길석 외(2012)	박선옥(2013)
31-34	추론적 이해 (화제 추론하기)	내용 이해하기 (문장 차원)	추리추론	추론적 이해 (주제 찾기)

앞에서 볼 수 있듯이 공개된 문항틀의 ‘문항 유형’에서는 ‘읽고 주제 찾기’라는 명칭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항 유형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수정될 필요가 있다. ‘읽고’라는 표현은 여타의 문항 유형 명칭에서 사용하지 않는 잉여적인 표현으로, 해당 문항 전체가 읽기 영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표현을 명시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없다. ‘주제’라는 용어도 적절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제’라는 용어의 쓰임과 이 문항에서 묻고 있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문항은 광고문에서 광고하고 있는 대상이나 생활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포괄하는 상위 범주를 묻고 있기 때문에, ‘주제’을 대체할 수 있는 용어로 강현화 외(2009), 박지연(2012)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제’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텍스트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대상을 묻고 있기 때문에 ‘찾기’보다는 ‘파악하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문항 유형은 ‘화제 파악하기’로 명명한다.

이 유형의 문항은 지시문(발문)이 “무엇에 대한 글인지 고르십시오.”이기 때문에 ‘내용 이해하기’의 범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정진옥 2012:54), 강현화 외(2009), 박지연(2012), 양길석 외(2012), 박선옥(2013) 등 대부분의 논의에서 ‘추론적 이해’ 혹은 ‘추리 추

론'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여기에는 이 문항이 "함축적으로 표현된 구절을 일반적 표현으로 해석하는"(박지연 2012:33) 능력을 요구한다거나 "짧은 글에서 중심 내용을 추론하는"(양길석 외 2012:37) 능력을 요구한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듯하다. 실제 출제된 문항을 살펴보면, 광고의 대상이 되는 전자사전(22회, 31번)이나 세탁소(22회, 32번)가 해당 텍스트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으며, 해당 텍스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포괄하는 상위 범주의 화제인 여행 상품 소개(22회, 33번)와 보관 방법(22회, 34번)을 추출해 내려면 '추론'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문항에서 제시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추론'의 과정만이 아니다. 광고문이나 안내문 등이 유통되는 상황이나 맥락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며, 광고나 안내의 대상에 대한 배경 지식과 사회문화적 이해도 필요하다. 일견 단순해 보이는 문항 유형이지만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대상에 대한 추론과 상황 맥락에 대한 이해, 배경 지식과 사회문화적 이해 등 요구하는 능력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문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항의 이러한 성격을 포괄할 수 있는 인지 과정으로 '통합과 해석' 범주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텍스트에 제시된 정보들을 통합하여 배경지식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이 이 문항에서 요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2) 세부 내용 파악하기

문항번호	출제 의도	문항 유형	지시문(발문)
35-38	세부 내용 이해 여부를 측정한다.	세부 내용 파악하기	다음을 보고 내용이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50, 54, 58	세부 내용 이해 여부를 측정한다.	세부 내용 파악하기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문항번호	강현화 외(2009), 박지연(2012)	정진옥(2012)	양길석 외(2012)	박선옥(2013)
35-38 50, 54, 58	사실적 이해(일치하는 내용 찾기)	내용 이해하기 (일치하는 정보 찾기)	세부 내용	사실적 이해 (세부 내용 파악)

이 문항 유형의 명칭은 공개된 문항틀에서 '세부 내용 파악하기'로 제시하고 있다. 강현화 외(2009), 박지연(2012)에서는 '일치하는 내용 찾기', 정진옥(2012)에서는 '일치하는 정보 찾기' 등으로 달리 부르고 있는데, 이는 실제 문항의 지시문이 "내용이 같은 것을" 고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일치하는 내용'보다 '세부 내용'이, 그리고 '찾기'보다 '파악하기'가 더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라는 점을 중시하여 이 문항 유형을 '세부 내용 파악하기'로 부른다.[5)]

'세부 내용 파악하기'의 유형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사실적 이해'의 범주에 속한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 유형은 본고에서 인지 과정으로 볼 때 '접근과 확인'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된다. 예를 들어 '박람회' 안내 포스터의 텍스트를 읽고서, 박람회가 주말에도 열리는지 그렇지 않은지 혹은 관람을 하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를(22회 35번) 수험자에게 판정할 것으로 요구하는데, 이는 해당 정보가 텍스트의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찾아서 접근해야 하고 실제 기술 내용을 확인해야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이다.

---

5) 경우에 따라 지시문(혹은 발문)은 '내용이 다른 것' 혹은 '내용과 같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부정의 형식으로 변형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정한'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형식으로 변형될 가능성도 있다. '세부 내용 파악하기'라는 명칭은 이런 유형의 문항을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3) 중심 내용 파악하기

문항번호	출제 의도	문항 유형	지시문(발문)
39-42	중심 생각 파악 능력을 측정한다.	중심 생각 파악하기	다음을 읽고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51, 57, 59	중심 생각 파악 능력을 측정한다.	중심 생각 파악하기	이 글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문항번호	강현화 외(2009), 박지연(2012)	정진옥(2012)	양길석 외(2012)	박선옥(2013)
39-42 51, 57, 59	사실적 이해 (중심 내용 파악하기)	중심 생각 파악하기	중심 내용	추론적 이해 (중심 생각 파악)

이 유형의 문항은 문항틀에서 '중심 생각 파악하기'로 제시하고 있으나, 강현화 외(2009), 박지연(2012), 양길석 외(2012)에서는 '중심 생각' 대신 '중심 내용'이라는 용어로 문항 유형의 명칭을 제시하고 있다. '중심 생각'과 '중심 내용'이라는 용어는 대체로 가리키는 바가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여기에서는 '중심 내용'이라는 용어를 따르기로 한다. 이는 '중심 내용'이라는 용어가 앞에서 살펴본 '세부 내용 파악하기'의 '세부 내용'과 평행적인 용어라는 점과 고급의 읽기 영역에서는 공개된 문항틀에서 '중심 내용'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는 점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중심 내용 파악하기' 유형은 연구자에 따라 '사실적 이해'의 범주로 처리되기도 하고 '추론적 이해'의 범주로 처리되기도 한다.[6] 하지만 본고에서는 '중심 내용'이 텍스트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든 그렇지 않고 숨겨져 있든 상관없이, '중심 내용 파악하기 유

6) 이는 제시된 정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는 면에서는 수험자의 행동이 '사실적'이라고 할 수 있고, 제시된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가려낸다는 점에서는 '추론적'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형의 문항은 텍스트의 정보를 통합하고 해석하는 과정에 속한다고 판단한다. 텍스트에 제시된 여러 정보들을 통합하고 중요한 정보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정보를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중심 내용'을 판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텍스트 표면에 분명하게 진술된 내용이 '중심 내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중심 내용'으로 판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거기에 접근하고 그 정보를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중심 내용'으로 해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7] 따라서 이 유형의 문항은 '통합과 해석' 범주로 분류된다.

4) 문장의 순서 파악하기

문항번호	출제 의도	문항 유형	지시문(발문)
43-45	맥락 이해 능력을 측정한다.	순서 파악하기	다음을 순서대로 맞게 배열한 것을 고르십시오.

문항번호	강현화 외(2009), 박지연(2012)	정진옥(2012)	양길석 외(2012)	박선옥(2013)
43-45	논리적 이해 (글의 순서 파악하기)	담화 상 위치 파악하기	맥락 이해	사실적 이해 (순서파악하기)

7) 예를 들어, 제22회 39번 문항에서 제시된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되면 창피해서 숨기고 싶어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완벽해 보이는 사람보다 가끔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 실수하는 사람에게는 인간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수를 하더라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보여 준다면 사람들과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이 텍스트를 읽고 수험자자 골라야 하는 중심 내용은 "솔직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 줘야 한다."이다. 정답으로 선택해야 하는 중심 내용은 분명히 문면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텍스트 여기저기에 흩어진 정보를 통합하여 중심 내용으로 해석하는 과정을 밟아야 수험자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합과 해석' 범주에 속한다.

이 문항 유형은 무작위로 뒤섞인 네 문장의 적절한 순서를 찾는 유형으로서, 공개된 문항틀에서는 '순서 파악하기'라는 명칭으로 문항 유형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순서 파악하기'의 '순서'는 무엇의 순서인지 명료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강현화 외(2009), 박지연(2012)에서는 이를 분명히 나타내기 위하여 '글의 순서 파악하기'라는 명칭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순서 파악의 구체적인 단위가 '글'이 아니라 '문장'의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중시하여 이 문항 유형을 '문장의 순서 파악하기'로 부르기로 한다.

이 유형의 문항은 '논리적 이해, 맥락 이해, 사실적 이해'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되었다. 문장의 적절한 순서는 텍스트의 응집성이나 의미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유형을 '논리적 이해'(강현화 외 2009, 박지연 2012) 혹은 '맥락 이해'(양길석 외 2012)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박선옥(2013)에서 이 유형을 '사실적 이해'의 범주로 분류한 이유는 명확히 찾을 수 없으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7)에서 '사실적 사고'의 하위 유형으로 '조직과 구성 원리 파악' 등을 두고 있어 이를 적용한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읽기' 영역 중 영역 분류에서도 '글의 짜임(구조) 파악'은 '내용 확인' 범주로 분류된다는 것도 그 이유의 하나로 추정된다.

그러나 제시된 텍스트의 구조를 파악하는 행위와 개별적으로 나열된 정보를 배열하여 텍스트로 구성하는 행위는 인지적인 과정의 범주에서 '접근과 확인'보다는 '통합과 해석' 범주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텍스트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 역시 단순한 확인에 그치지 않고 능동적으로 정보를 통합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제공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구조를 능동적으로 배열하고 구성하는 데에도 통합과 해석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주어진 내용에 적절한 구조를 도출해 내려면 연결 순서에 대한 가정과 적용 등과 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통

합과 해석’의 범주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을 중시하여 본고에서는 이 유형을 ‘문장의 순서 파악하기’로 명명하고 ‘통합과 해석’의 범주로 분류한다.

5) 생략된 정보 추론하기

문항번호	출제 의도	문항 유형	지시문(발문)
46-48	맥락 안에서 필요한 어구를 찾는 능력을 측정한다.	상황 맥락 활용하기	다음을 읽고 (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52, 56	글을 읽고 유추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상황 맥락 활용하기	( )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문항번호	강현화 외(2009), 박지연(2012)	정진옥(2012)	양길석 외(2012)	박선옥(2013)
46-48 52, 56	추론적 이해 (빈칸 내용 추론하기)	논리적 관계 파악하기(문장 삽입하기)	맥락 이해	추론적 이해 (맥락에 필요한 어구 찾기)

이 문항은 공개된 문항틀에서 ‘상황 맥락 활용하기’로 문항 유형을 제안하고 있으나, 위에서 보듯이 연구자마다 ‘빈칸 내용 추론하기’, ‘맥락에 필요한 어구 찾기’ 등으로 다양하게 부르고 있다.[8] 그런데 ‘상황 맥락 활용하기’라는 문항 유형으로 포괄할 수 있는 범위는 대단히 넓다고 할 수 있다. 이 유형과는 별도의 유형으로 처리되는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거나 텍스트의 목적을 파악하는 유

8) 46-48번과 52, 56번은 공개된 문항틀에서 ‘출제 의도’가 각각 ‘맥락 속에서 필요한 어구를 찾는 능력을 측정한다.’와 ‘글을 읽고 유추하는 능력을 측정한다’와 같이 서로 다르다. 그렇지만 이들은 ‘상황 맥락 활용하기’로 문항 유형이 동일하게 처리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도 공개된 문항틀의 ‘출제 의도’가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형도 일정 부분 상황 맥락을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으며, 인물의 심정이나 태도를 추론하는 과제도 상황 맥락을 활용하여 해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정보를 추론한다는 점에서 이 유형을 '생략된 정보 추론하기'로 부르고자 한다. 이 문항 유형은 텍스트의 생략된 부분을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빈칸 내용'보다는 '생략된 정보'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문항의 성격을 드러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생략된 정보를 복원하는 과제는 수험자로 하여금 텍스트에 나타난 정보를 통합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9] 따라서 이 유형의 문항은 인지 과정으로 볼 때 '통합과 해석'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6) 제목 파악하기

문항번호	출제 의도	문항 유형	지시문(발문)
49	중심 내용 파악 능력을 측정한다.	제목 붙이기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문항번호	강현화 외(2009), 박지연(2012)	정진옥(2012)	양길석 외(2012)	박선옥(2013)
49	사실적 이해 (제목 붙이기)	제목 붙이기	중심 내용	추론적 이해 (제목 구성)

이 문항 유형은 텍스트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제목을 고르는 유형으로서 공개된 문항틀에서는 '제목 붙이기'라는 명칭으로 제

9) 예를 들어 제22회 46번 문항의 경우 괄호 속에 생략된 정보인 '성별에 따라 좋아하는'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뒷부분에서 제시되는 "남성은 ~을 많이 찾고, 여성은 ~을 좋아하기 때문이다."라는 정보를 통합하여 해석해야 한다.

안되었으며, 강현화 외(2009), 박지연(2012), 정진옥(2012) 등에서도 이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도 지시문에 나타난 것처럼 '제목'이라는 용어를 따르도록 하는데, 다만 '붙이기'라는 용어는 '찾기, 고르기' 등과 같이 수험자의 직접적인 행위 차원에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다른 문항 유형과 균형이 맞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붙이기' 대신 '파악하기'라는 용어를 활용하여 이 문항 유형을 '제목 파악하기'로 부르기로 한다.

이 유형의 문항은 연구자에 따라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그런데 이 문항 유형은 단순히 텍스트에 드러난 정보에 접근하고 확인하는 차원의 인지 과정을 뛰어넘는 듯하다. 텍스트에 나타난 정보를 통합하여 핵심적인 개념을 추출하고 해석하여 기사문의 제목으로[10]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항 유형은 인지 과정으로 볼 때 '통합과 해석'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한다.

7) 글의 목적 파악하기

문항번호	출제 의도	문항 유형	지시문(발문)
55	저술 의도 유추 능력을 측정한다.	이유, 목적, 근거 파악하기	글쓴이가 이 글을 쓰게 된 목적이 무엇인지 고르십시오.

10) 중급에서는 49번 문항 고급에서는 58번 문항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신문의 기사문을 대상으로 제목을 파악하는 문항이다. 중급에서는 대체로 사건과 사고를 다루는 기사문을, 고급에서는 시사 문제와 관련된 사설류의 기사문을 텍스트로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글의 제목과 기사문의 제목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수험자들이 제목을 파악할 때에도 텍스트 유형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문항번호	강현화 외(2009), 박지연(2012)	정진옥(2012)	양길석 외(2012)	박선옥(2013)
55	구조적 이해 (글의 유형/기능 파악하기)	글의 목적 파악하기	추리추론	추론적 이해 (저술 의도 유추하기)

이 문항의 지시문(발문)은 “글쓴이가 이 글을 쓰게 된 목적이 무엇인지 고르십시오.”로서, 글을 쓴 목적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여 수험자로 하여금 글의 목적을 파악하게 한다. 공개된 문항틀에서는 ‘이유, 목적, 근거 파악하기’가 제시되었으나, 실제 출제된 문항의 지시문(발문)은 “이 글을 쓰게 된 목적”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진옥(2012)에서 제안된 바대로 ‘글의 목적 파악하기’로 부른다.

대부분의 논의에서 이 문항 유형은 ‘추론’ 범주로 분류되었다(양길석 외 2012, 박선옥 2013). 강현화 외(2009), 박지연(2012)에서는 이를 ‘구조적 이해’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으나, 글의 목적 추론이 어떤 점에서 ‘구조적 이해’에 해당하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여기에서는 ‘글의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에 제시된 정보와 독자의 배경지식을 결합하여 해석해야 하는 사고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합과 해석’ 범주에 속하는 유형으로 처리한다.

8) 인물의 태도/심정 파악하기

문항번호	출제 의도	문항 유형	지시문(발문)
53	글쓴이의 태도를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글쓴이의 태도 파악하기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글쓴이의 기분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문항번호	강현화 외(2009), 박지연(2012)	정진옥(2012)	양길석 외(2012)	박선옥(2013)
53	추론적 이해 (글쓴이의 심정 파악하기)	필자의 심정 파악하기	추리추론	추론적 이해 (글쓴이의 기분 파악)

이 문항 유형은 관찰할 수 있는 행동이나 행위의 이면에 숨어 있는 인물의 태도나 심정 혹은 기분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유형으로, 공개된 문항틀에서는 '글쓴이의 태도 파악하기'로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문항의 지시문은 "글쓴이의 기분"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태도만 아니라 심정을 물어보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은 '태도/심정 파악하기'로 처리할 수 있는데, 고급의 53번 문제에서는 등장인물의 '태도/심정'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은 동일한 유형으로 처리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출제 의도, 문항 유형>에서 밝힌 '글쓴이'를 중립적인 술어인 '인물'로 교체하고 '태도, 심정'을 함께 드러내어 이 문항 유형을 '인물의 태도/심정 파악하기'로 부른다.

인물의 태도나 심정을 파악하는 이 문항은 텍스트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추론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추론'은 텍스트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통합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 도달하게 되므로, 이 유형은 인지 과정으로 볼 때 '통합과 해석' 범주에 속한다.

9) 앞/뒤에 올 내용 추론하기

문항번호	출제 의도	문항 유형	지시문(발문)
60	글의 전개 양상 이해를 측정한다.	논리적 흐름 파악하기	이 글 앞에 있었을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문항번호	강현화 외(2009), 박지연(2012)	정진옥(2012)	양길석 외(2012)	박선옥(2013)
60	추론적 이해(읽은 내용 앞이나 뒤의 내용을 추론하기)	앞에 올 내용 추론하기	추리추론	추론적 이해 (앞에 올 내용 추론하기)

이 문항 유형은 제시된 텍스트의 정보를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앞이나 뒤에 전개될 정보를 예측하는 유형이다. 이 문항은 고급의 53번 문항과 동일한 유형으로서, 지시문은 각각 “이 글 앞에 있었을 내용으로”와 “이 글의 앞에 올 내용으로”로 상이하지만 그 차이는 별개의 문항 유형으로 처리될 성질의 것은 아니라 판단된다. 또한 ‘앞에’ 올 내용만 출제되었지만, ‘뒤에’ 올 내용 역시 동일한 형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항 유형을 ‘앞/뒤에 올 내용 추론하기’로 명명한다.

인지 과정으로 볼 때 ‘앞/뒤에 올 내용 추론하기’ 유형은 텍스트 내의 정보를 통합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 적절한 내용을 추론하기 때문에, ‘접근과 확인’, ‘통합과 해석’, ‘성찰과 평가’의 인지 과정을 상정하고 있는 본고에서 이 문항 유형은 ‘통합과 해석’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된다.

4. 고급의 문항 유형

고급의 문항 유형은 총 11개 유형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문항 번호 순서).

제목 해석하기(31～32번), 글의 목적 파악하기(33～34번, 51번), 주제문 파악하기(35～36번), 주제 파악하기(37～38번), 문장의 위치 파악하

기(39~41번), 세부 내용 파악하기(42~44번, 50번, 52번, 56번, 58번), 생략된 정보 추론하기(45~46번, 48번, 52번, 57번, 60번), 중심 내용 파악하기(47번, 49번)인물의 태도/심정 파악하기(53번), 앞/뒤에 올 내용 추론하기(55번), 제목 파악하기(58번)

이 중에서 '제목 해석하기, 주제문 파악하기, 주제 파악하기, 문장의 위치 파악하기' 유형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 나머지 유형은 중급의 문항 유형과 차이가 없으므로 따로 논의하지 않는다.

1) 제목 해석하기

문항번호	출제 의도	문항 유형	지시문(발문)
31-32	머리글을 이해한다.	제목 이해하기	다음은 신문 기사의 제목입니다. 가장 잘 설명한 것을 고르십시오.

문항번호	강현화 외(2009)	이상린(2011)	양길석 외(2012)	박선옥(2013)
31-32	사실적 이해 (제목 해석하기)	머리글 이해하기	추리추론	추론적 이해 (제목 이해하기)

이 유형은 주로 압축적이고 함축적으로 표현된 신문 기사의 제목을 제시하고 이를 중립적이고 사실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설명한 것을 고르게 하는 유형이다. "외국인 국내 유입 증가, 인구 감소 속도 늦출 듯"(22회, 31번)과 "대기업들 경영진 세대교체로 업계 '새바람'"(22회, 32번) 등의 제목이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 적절하게 응답하기 위해서는 신문 기사 제목의 형식적/내용적 특징에 대한 이해와 함께 상황 맥락과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압축적이고 함축적인 표현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문항 틀의 <문항 유형>에서 제시한 '제목 이해하기'는 과제 수행 중에서 전반부인 '이해'의 단계까지만 포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는 '이해'

의 차원을 넘어서 능동적인 '해석'의 단계까지 나아간다는 점을 중시하여 이 유형을 강현화 외(2009)를 따라 '제목 해석하기'로 명명한다. 다만 강현화 외(2009)에서는 이 유형을 '사실적 이해'의 범주로 분류하였는데, 적절한 해석에 이르기 위해서는 여러 배경지식과 관련된 정보를 통합하는 과정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통합과 해석' 범주로 분류한다.

2) 주제문 파악하기

문항번호	출제 의도	문항 유형	지시문(발문)
35-36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	읽고 주제 찾기	다음 글의 주제문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문항번호	강현화 외(2009)	이상린(2011)	양길석 외(2012)	박선옥(2013)
35-36	사실적 이해 (주제 파악하기)	중심 내용 파악하기	중심 내용	추론적 이해 (주제 찾기)

이 유형은 <출제 의도>와 <문항 유형>에서 '중심 내용, 주제'라는 용어가 쓰였지만, 실제 지시문(발문)에서는 '주제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용어 '중심 내용, 주제, 주제문' 사이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인다. 강현화 외(2009)나 박선옥(2013)에서는 이 문항을 '주제 찾기'로 불렀고, 이상린(2011)와 양길석 외(2012)에서는 '중심 내용 파악'으로 처리하였다는 점에서 미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중심 내용, 주제, 주제문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더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여기에서는 일단 수험자가 수행하게 되는 과제를 중시하여 이 문항을 '주제문 파악하기'라는 세부 유형으로 처리한다. 이 문항은 대체로 네 문장으로 구성된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여 어느 문장이 '주제문'인지 찾아 답하게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문항은 ‘사실적 이해’ 범주로 분류되기도 하고(강현화 외 2009), ‘추론적 이해’ 범주로 분류되기도 하였다(박선옥 2013). 이 문항은 네 문장 중에서 중심 내용과 가장 가까운 문장을 해당 텍스트에서 골라내는 과제를 수행한다. 다시 말해 텍스트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난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판별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보들을 통합하고 해석해야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유형은 인지 과정을 기준으로 할 때 ‘통합과 해석’ 범주로 분류한다.

3) 주제 파악하기

문항번호	출제 의도	문항 유형	지시문(발문)
37-38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	읽고 주제 찾기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문항번호	강현화 외(2009)	이상린(2011)	양길석 외(2012)	박선옥(2013)
37-38	사실적 이해 (주제 파악하기)	중심 내용 파악하기	중심 내용	추론적 이해 (주제 찾기)

이 문항은 텍스트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주제를 찾아 고르게 하는 유형이라는 점에서 앞에서 본 ‘주제문 파악하기’ 유형과 차이가 있다. 제시된 정보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문항과 제시되지 않은 주제를 파악하는 문항은 텍스트의 중심 내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차별적인 성격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문항 유형>과 <지시문(발문)>의 표현을 활용하여 이 문항의 세부 유형을 ‘주제 파악하기’로 명명한다.

‘주제문 파악하기’ 유형과 마찬가지로 이 문항 유형도 ‘사실적 이해’로 분류되기도 하고(강현화 외 2009), ‘추론적 이해’로 분류되

기도 한다(박선옥 2013). 이 문항 유형에서 주제는 대체로 텍스트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숨겨진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에 제시된 정보를 통합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이 유형은 '통합과 해석' 범주로 분류된다.

4) 문장의 위치 파악하기

문항번호	출제 의도	문항 유형	지시문(발문)
39-41	문맥을 이해한다.	순서 파악하기	다음 글에서 <보기>의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알맞은 곳을 고르십시오.

문항번호	강현화 외(2009)	이상린(2011)	양길석 외(2012)	박선옥(2013)
31-32	구조적 이해 (문장 삽입하기)	문맥 이해하기	맥락 이해	사실적 이해 (순서 파악하기)

이 유형은 지시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제시된 문장이 텍스트의 여러 위치 중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지 묻는 문항이다. 공개된 문항틀에서는 '순서 파악하기'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중급의 '문장의 순서 파악하기'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중급에서는 무작위로 섞인 네 문장의 순서를 파악하는 유형이었다면, 이 유형은 하나의 문장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를 파악하는 유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 유형을 중급의 '문장의 순서 파악하기' 유형과 평행하게 '문장의 위치 파악하기'로 부르기로 한다.

이 문항 유형 역시 텍스트에 있는 정보를 통합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게 되므로 인지 과정을 기준으로 할 때 '통합과 해석'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5. 숙달도에 따른 문항 유형의 비율과 종류

이상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숙달도에 따라 초급과 중급, 고급에서 활용된 구인 범주와 세부 유형의 문항 수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초급의 읽기 영역에서 사용되는 문항 유형은 동양・이혁화(2013)의 논의 결과를 따른다.

	초급		중급		고급	
	유형	수	유형	수	유형	수
접근과 확인	표지 이해	3	-	-	-	-
	세부 내용 파악	12	세부 내용 파악	7	세부 내용 파악	7
통합과 해석	화제 파악	3	화제 파악	4	-	-
	중심 내용 파악	3	중심 내용 파악	7	중심 내용 파악	2
	생략된 정보 추론	7	생략된 정보 추론	5	생략된 정보 추론	6
	제목 파악	1	제목 파악	1	제목 파악	1
	문장의 위치 파악	1	-	-	문장의 위치 파악	3
	-	-	문장의 순서 추 론	3	-	-
	-	-	글의 목적 파악	1	글의 목적 파악	3
	-	-	태도/심정 파악	1	태도/심정 파악	1
	-	-	앞/뒤 내용 추론	1	앞/뒤 내용 추론	1
	-	-	-	-	제목 해석	2
	-	-	-	-	주제문 파악	2
	-	-	-	-	주제 파악	2

이를 다시 인지 과정과 숙달도 등급을 기준으로 문항의 수와 비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등급 / 인지 과정	초급		중급		고급	
	문항 수	비율(%)	문항 수	비율(%)	문항 수	비율(%)
접근과 확인	15	50	7	23.3	7	23.3
통합과 해석	15	50	23	76.7	23	76.7
합계	30	100	30	100	30	100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인지 과정에 따른 범주의 종류, 숙달도에 따른 구인 범주의 구성 비율, 고정화된 세부 유형의 배치에 따른 효과 등이다. 첫 번째로 논의할 문제는 한국어능력시험 읽기 영역의 문항이 '접근과 확인', '통합과 해석'의 두 범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모국어 읽기 상황에서는 읽기 능력을 바라보는 관점이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의미를 재구성하고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차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비판적 읽기나 창의적 읽기에 이르기까지 읽기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읽기 평가의 범주도 '접근과 확인, 통합과 해석'의 범주와 구별되는 '비판/평가' 혹은 '평가/감상' 혹은 '성찰/평가' 등의 범주가 새로이 등장하였다.

제2 언어 읽기 상황에서도 이러한 범주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Alderson(2000:122)에서는 평가 기술(evaluation skill)을 읽기 구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Brown(2004:265)에서도 "글 전체 또는 특정한 진술이나 관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반응하기' 과제를 확장적 읽기의 평가 방법 중의 하나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곧 '비판/평가'의 범주에 해당한다. 앞에서 살펴본 Grabe(2009)에서도 독해를 위한 주요 부문 능력으로 '평가와 비판적 읽기'를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영역의 작문형 문제에서는 <창의적인 사고 능력의 필요성>(22회

고급), <바람직한 인간관계>(23회 고급) 등의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곧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 쓰기 환경에서도 '성찰/평가' 등의 구인 범주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유독 한국어능력시험의 읽기 영역에서만 '성찰과 평가'의 구인 범주가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이상린(2012), 박선옥(2013) 등에서도 '비판적 이해' 범주의 부재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숙달도 수준에 따라 초급에서는 '비판/평가'의 구인 범주가 제외될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중급과 고급에 이르기까지 이 범주가 제외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균형적이고 종합적인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 읽기 능력 평가를 위해서는 '접근과 확인, 통합과 해석' 범주로만 이루어진 읽기 구인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논의되어야 하는 점은 숙달도에 따른 인지 과정 범주의 비율에 대한 검토이다. 한국어능력시험은 현재 '접근과 확인, 통합과 해석' 범주의 비율이 '50:50'(초급), '23.3:76.6'(중급과 고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범주의 비율이 과연 적절한지에 따져보아야 한다. 숙달도에 따라 구인 비율은 대체로 초급에서는 '접근과 확인' 범주를 비중 있게 다루고 고급 수준으로 갈수록 '통합과 해석' 범주의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는 점은 동의할 수 있지만 과연 어떠한 비율이 적정한지는 이론적으로 논의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제1 언어를 대상으로 한 성취도 읽기 평가 도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년별 혹은 연령별 읽기 범주의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NAGB 2010:41, 김도남 외 2012, OECD 2013:69).[11]

11) NAEP 2011, PISA 2012은 이와 같은 구인 범주의 비중이 명시되어 있지만, 201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그 비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행된 시험을 통해 그 비중을 추출하였다. 김도남 외(2012)에 따르면, 201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읽기의 '내용 확인, 추론, 평가와 감상'에 해당하는 문항 수는 '4, 5, 3'(초6, 총 12문항), '4, 5, 3'(중3 총 12문항), '3, 5, 5'(고2 총 13문항)로 구성되었다. 여기에서는 그 비율을 제

NAEP 2011				2011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학년	확인/회상	통합/해석	비판/평가	학년	내용 확인	추론	평가와 감상
4	30	50	20	초6	33.3	41.7	25
8	20	50	30	중3	33.3	41.7	25
12	20	45	35	고2	23	38.5	38.5

PISA 2012			
연령	접근과 확인	통합과 해석	성찰과 평가
만 15세	22	56	22

국가적으로 혹은 국제적으로 시행되는 읽기 평가 도구에서 찾을 수 있는 경향은 읽기의 3가지 범주 중에서 '통합/해석' 혹은 '추론'의 범주가 학년과 연령에 관계없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학습 경험이 증가할수록 '확인/회상' 혹은 '내용 확인'의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비판/평가' 혹은 '평가와 감상'의 비중이 늘어난다. 한국어능력시험 읽기 영역의 경우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 '통합과 해석'이 '접근과 확인'의 범주보다 비중이 높은데, 이는 숙달도 등급을 고려하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학습 경험이 증가할수록 다시 말해 초급에서 고급으로 갈수록 '접근과 확인' 범주의 비중이 줄어들고 '통합과 해석' 범주의 비중이 늘어나는데, 이는 여타의 읽기 평가 도구에서 나타나는 경향과 일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의 일치는 단지 참고 수준에만 그칠 뿐이다. 한국어능력시험과 여타 읽기 평가 도구는 숙달도 평가와 성취도 평가, 제2 언어로서의 읽기 평가와 제1 언어로서의

시하였다. 한편 조지민 외(2012:62)에 따르면 한국에서 시행된 PISA 2012의 읽기 영역에서는 총 44개의 문항이 사용되었는데 이중에서 접근 및 확인은 10개(22,7%), 통합 및 해석은 24개(54.5%), 성찰 및 평가는 10개(22.7%)로 구성되었다.

읽기 평가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어능력시험과 유사한 성격의 언어 평가 도구들을 대상으로 하여 경험적인 증거와 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논의할 것은 고정된 세부 유형의 배치에 따른 영향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어능력시험은 제22회 시험부터 공개된 문항 틀에 의거하여 문항이 출제된다. 고정된 평가 체계가 공개됨에 따라 문항 유형에 따른 회차별 편차가 줄어들어 시험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크게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공개된 문항틀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상황, 텍스트의 종류, 독자의 읽기 인지 과정' 등과 같은 기본 구성 요소가 부재하다는 문제점은 이미 이상린(2012:268), 박선옥(2013:76~82) 등에서 지적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따로 논의하지 않는다. 다만 여기에서는 각 문항의 세부 유형까지 고정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중급과 고급의 읽기 영역에서 '인물의 태도/심정 파악하기' 유형은 30문제 중에서 각각 1문제씩 출제되는데, 매회 같은 비중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한국어능력시험에서는 조작적으로 전체 읽기 능력 중에서 '인물의 태도/심정을 파악하는' 능력이 3.3%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파악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나아가 현재 문항틀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은 세부 유형은 조작적으로 읽기 능력을 측정하는 데 있어 필요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과 판단은 공개된 문항틀에서 세부 유형이 명시됨으로써 도출되는 것이지, 한국어능력시험의 설계 단계에서 경험적 증거에 의거하여 세부 유형의 종류와 비율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 특정 읽기 기술이 3.3%의 비중으로 읽기 능력의 하위 부문으로 구성된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연구 결과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지 과정의 차원에서 해당 범주의 비율을 공개하는 읽기 평가 도구에서도

문항의 세부 유형에 대한 고정화 작업은 진행하지 않는데, 이런 점에서도 세부 유형의 고정화 작업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6. 마무리

이상에서 우리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읽기 영역을 대상으로 문항 유형과 인지 과정에 따른 분류 기준을 검토하고 숙달도에 따른 문항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논의한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한국어능력시험 중급의 읽기 영역에서 활용되는 문항 유형은 9가지이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각각 '화제 파악하기, 세부 내용 파악하기, 중심 내용 파악하기, 문장의 순서 추론하기, 생략된 정보 추론하기, 제목 파악하기, 인물의 태도/심정 파악하기, 글의 목적 파악하기, 앞/뒤에 올 내용 추론하기' 등으로 명칭을 붙일 수 있다. 인지 과정을 기준으로 할 때, '접근과 확인' 범주에 속하는 유형은 '세부 내용 파악하기'뿐이며, 나머지 8가지 유형은 모두 '통합과 해석'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국어능력시험 고급의 읽기 영역에서 사용되는 문항 유형은 11가지이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각각 '주제문 파악하기, 주제 파악하기, 제목 해석하기, 문장의 위치 파악하기' 등과 '세부 내용 파악하기, 중심 내용 파악하기, 생략된 정보 추론하기, 제목 파악하기, 글의 목적 파악하기, 인물의 태도/심정 파악하기, 앞/뒤에 올 내용 추론하기' 등이다. 이 중에서 '세부 내용 파악하기'만이 인지 과정을 기준으로 할 때 '접근과 확인' 범주에 속하며 나머지 유형은 모두 '통합과 해석'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숙달도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 읽기 영역의 문항 구성을 살펴본 결과, 인지 과정에 따른 범주의 종류는 '접근과 확인', '통합과 해

석' 범주만 존재하며 '성찰과 평가' 범주에 속하는 문항이 없었다. 균형 잡힌 제2 언어 읽기 평가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숙달도에 따른 '접근과 확인', '통합과 해석' 범주의 구성 비율은 고급으로 갈수록 '통합과 해석' 범주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대체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어느 정도의 비중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고정화된 문항 유형의 배치는 평가 도구로서의 안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의 보완과 검증이 필요하다.

한국어능력시험의 읽기 영역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읽기 능력 측정 도구로서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할 부분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문항 유형의 종류와 비율은 측정 도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구성 요건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서의 작업이 이러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도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승혜 · 강명순 · 이영식 · 이원경 · 장은아, 『한국어 평가론』, 태학사, 2006.

강현화 · 김미옥 · 김제열 · 우인혜 · 이숙, 『한국어 이해교육론』, 형설출판사, 2009.

김경희 · 시기자 · 김미영 · 옥현진 · 임해미, 『OECD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PISA 2009) 결과 보고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

김도남 · 김영란 · 김현정 · 김미경 · 이지영, 『201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 국어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

김정숙 · 김중섭 · 서혁 · 심상민 · 진대연, 『한국어능력시험 15년사』, 한

국교육과정평가원, 2010.
김혜정,「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개선을 위한 '읽기' 평가의 비판적 검토」,『국어교육』134, 2011, pp. 61-86.
동양・이혁화,「한국어능력시험 초급 읽기 영역의 문항 유형과 분류」,『한민족어문학』65, [간행 예정].
박선옥,「한국어능력시험의 읽기 문항 분석을 통한 읽기 평가 틀 점검」,『언어학연구』26, 한국중원언어학회, 2013, pp. 71-92.
박지연,「한국어 능력 시험 읽기 영역 분석과 효율적인 읽기 교육 방안 -중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양길석・민경석・박정진,『한국어능력시험 구인 분석 연구』, 국립국제교육원, 2012.
이상린,「한국어능력시험 읽기 영역에 대한 연구 - 제20회~제22회 고급 수준을 중심으로 -」,『교육종합연구』9-2, 2011, pp. 218-240.
이상린,「한국어능력시험 읽기 영역 평가 틀에 대한 비판적 검토」,『우리어문연구』43, 2012, pp. 255-279.
이해영,「한국어 이해능력 평가의 원리 및 실제」,『한국어교육』16-3, 2005, pp. 275-304.
정진옥,「한국어능력시험(TOPIK) 읽기 영역 평가 문항의 내용 타당도 분석 - 21회~25회 중급을 중심으로 -」,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조윤희,「한국어능력시험 읽기 문항 유형 및 주제 분석 - 한국어능력시험 조급 읽기 영역을 중심으로 -」,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조지민・동효관・옥현진・임해미・정혜경,『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PISA 2012 본검사 시행 보고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편,『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행동 영역별 예시 문항 - 언어 영역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7.
Alderson, J. Charles, *Assessing readin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Brown, H. Douglas, *Language assessment - principles and classroom practices*, Pearson Education, 2004.

Enright, Mary K., Grabe, William, Koda, Keiko, Mosenthal, Peter B., Mulcahy-Ernt, Patricia, Schedl, Mary A, *TOEFL 2000 Reading Framework: A Working Paper*, ETS, 2000.

Grabe, W., *Reading in a second language: Moving from Theory to Prac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NAGB, *Reading Framework for the 2011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National Assessment Governing Board, 2010.

OECD, *PISA 2012 Assessment and Analytical Framework: Mathematics, Reading, Science, Problem Solving and Financial Literacy*, OECD Publishing, 2013.

Item Types and Construction about Intermediate and Advanced Reading Area in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TOPIK)

Dong, Yang · Lee, Hyeok-Hwa

This paper aims to set up the item types in the Intermediate and Advanced reading area in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TOPIK) by the classification standards, and to analysis their constructions. Through the comparative discussion of official TOPIK frameworks and some researcher's works, the item types were classified by three cognitive process standards; access and retrieve, integrate and interpret, reflect and evaluate. In the intermediate and advanced reading area, it comes to the front that there is 9, and 11 item types respectively. Among the item types, only the 'grasp the detail content' type is classified into 'access and retrieve' category. The other item types are classified into 'integrate and interpret' category. There is no item type that can be classified into 'reflect and evaluate' category. On the kind and rate of item types according to the proficiency levels, it was found out that there is a tendency that the item types which is in 'integrate and interpret' category increased as the proficiency levels is higher. But it was found that some improvements are necessary, still. There is no item types in TOPIK which can be classified into 'reflect and evaluate' category. And the rate of item types according to the proficiency levels in TOPIK needs more empirical and theoretical grounds. Lastly, the fixation of the item types in TOPIK may cause some undesirable effects.

Key words: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TOPIK), Intermediate and Advanced reading area, item type, cognitive process, access and retrieve, integrate and interpret, reflect and evaluate, proficiency

董洋
소속: 영남대학교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학과
주소: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학과
전화번호: 053-810-3541
전자우편: dongyangxinzi@hotmail.com

이혁화
소속: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주소: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화번호: 053-810-2110
전자우편: lhhjs@ynu.ac.kr

이 논문은 2013년 10월 31일 투고하여
2013년 12월 09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12월 31일 게재 확정함.